

2006 **답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과 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과학기술인 가운데 최근의 업적과 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귀감이 될 10명의 과학기술인을 2006년도 '답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으로 선정했다.

과학기술부는 8월 24일(목) 18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선정인과 가족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 '답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06년도 '답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은 학술연구 부문, 산업 부문, 사회문화 부문 등 모두 3분야에서 선정되었다. ▲학술연구 부문에는 김기문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유 룡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이영희 성균관대 물리학 교수, 황준목 고등과학원 수학과 교수 등 5명, ▲산업 부문에는 박상일 PSIA(주) 대표이사, 박희재 에스엔유프리시전(주) 대



김기문 교수



백경희 교수



유 룡 교수



이영희 교수



황준목 교수



박상일 대표이사



박희재 대표이사



이현순 사장



김제완 교수



이덕환 교수

표이사, 이현순 현대자동차(주) 사장 등 3명 ▲ 사회문화 부문에는 김제완 과학문화진흥회 회장,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등 2명이 선정되었다.

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과학기술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과학기술계로의 진로 선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10명 내외의 과학기술인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절차는 청소년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추천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인을 결정한다.

올해는 모두 407명의 과학기술인들이 후보자로 공개 추천되었으며, 추천위원회(위원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고문)를 통해 30명이 선발되고 선정위원회(위원장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에서 최종 10명의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였다. ㉓



수상분야	수상자	수상 이유
학술연구	김기문	초분자화학의 세계적 권위자로 다양한 크기의 쿠퍼비투릴 동족체와 기능성 유도체 합성법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또한 유기분자와 금속이온을 이용하여 키랄 나노 다공성 결정물질 'POST-1'을 개발해 이를 임체선택적 구조를 갖는 물질의 합성에 촉매로 쓸 수 있음을 증명했다.
	백경희	국내 처음으로 병저항성을 가진 형질전환 고추품종을 개발했다. 또한, 식물에 들어 있는 'Tsi1'이라는 유전자를 담배에서 과다 발현시킨 결과 이 유전자가 결합하는 다른 병저항성 관련 유전자들도 역시 과다하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 유전자가 도입된 담배는 바이러스, 세균 등의 침입시 저항성이 증진되고 고염도 처리에도 저항성이 나타난다.
	유 룡	나노미터 크기의 세공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최초의 규칙적 나노다공성 탄소 물질 CMK-n을 발표함으로써 나노다공성 신물질 연구분야를 개척, 연료전지 분야 이용기술 및 고분자-탄소 복합물질의 합성 및 응용기술을 개척했다.
	이영희	금속성 탄소나노튜브의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 변환기술 개발,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 대량 분리·추출기술 개발, 나노재료 조작 전자현미경 개발 등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의 연구성과들을 잇따라 쏟아내며 세계무대에서 실험과 이론을 겸비한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다.
	황준목	수학의 핵심 분야인 기하학의 오래된 미해결 문제를 해결했다. 15년간 미해결이던 공간 사이의 변환에 관한 라자스펠트 예상을 1999년 증명하였으며, 40여 년간 미해결 문제였던 변형불변성의 증명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에 걸쳐 총 100쪽이 넘는 네 편의 논문을 통해 완성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수학계 최고 권위를 가지는 국제수학자총회(ICM)의 2006년 회의에 강연 초청을 받아 국제 수학계의 리더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산업계	박상일	세계 최초 차세대 원자현미경을 개발했으며 다수의 원자현미경 분야 연구보고서 저술 및 17개 미국특허 획득하고 출원했다.
	박희재	서울대 창업벤처 1호로 지난 1998년 회사를 설립하여 광학 원천기술과 나노기반 측정기술,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핵심 자원으로 광학을 이용한 나노 측정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현순	국내 최고의 고유엔진인 '알파' 엔진 개발의 주역으로 중소 부품제조기업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켜 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설계단계부터 협력회사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를 확립하는 등 협력회사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사회문화	김제완	40여 년 동안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다 1997년 퇴직하면서 '과학문화진흥회'를 만들어 과학 대중화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현재 과학문화진흥회 회장으로 과학을 대중화하는 작업에 앞장서 2005년 7월에는 국립과학관에서 아인슈타인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2005년 '세계 물리의 해' 한국 조직위원장으로 '빛의 축제'를 주관했다. 저서로는 '겨우 존재하는 것들', '빛은 있어야 한다' 등이 있다.
	이덕환	조선일보 '과학칼럼', '일사일언', 한겨레신문의 '좌충우돌 분자이야기' 등 주요 일간지와 '과학과 기술'과 같은 과학전문지 등에 활발한 기고 활동으로 과학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 및 사이언스타임즈, '과학과 기술' 등에 활발한 기고활동을 펼치며 과학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